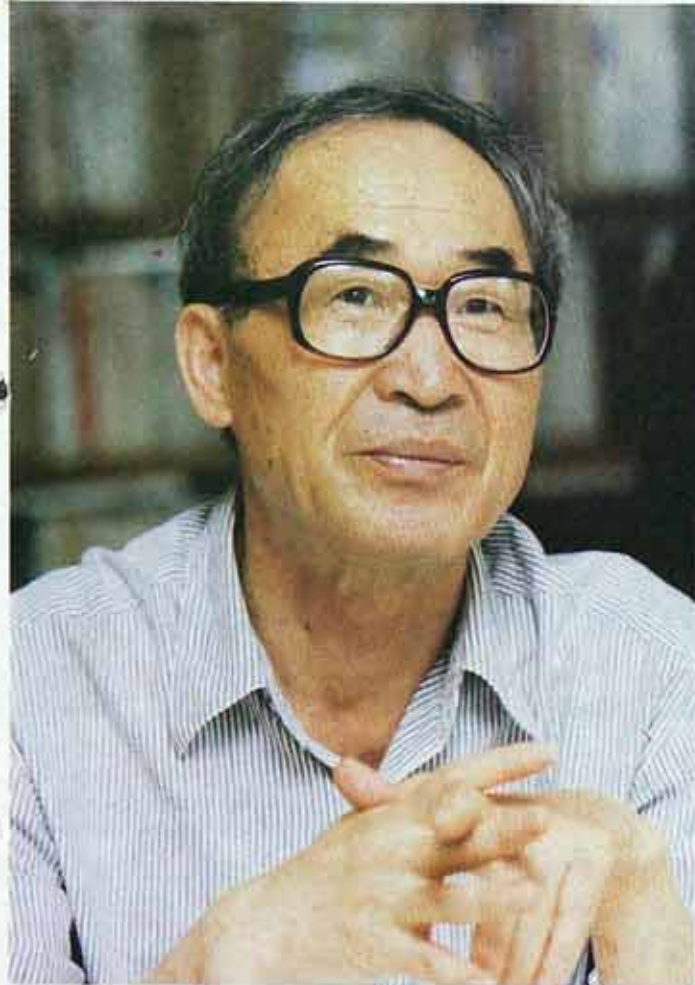


해외여행·항공권·여권비자 수속
공고상지순회 전문
(주) 예조여행사
인국동로타라(조계시역) 종로구 수송동 5번지 통일빌딩3층
전화: (02)733-3900

“사람은 사람속에서만 사람이다”



만다라 잔치판
‘萬人譜’의 작가

고 은

6월 민주항쟁 10주년
시인의 감회는 남다르다
특별감방서 ‘만인보’ 구상
시인이 만난 인물스케치
전 30권 4천여명 목표
19일 15권째 출판기념회
다음날 히말라야 설산行
“우리는 정신 뉘버렸다”



“딱 한번 후석 때 와서/한 닷새 집에 머물다가/출연하 또 떠나가는 막일꾼 ‘오복이 아버지’로부터 문이환 조영래 이우재 등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별빛들. 이들이 각기 그들의 모습대로 모여 찬란한 난장을 벌이고 있다. 어중이 떠중이 다 모여 만다라의 잔치판을 벌이고 있는 《만인보(萬人譜)》의 시인 고 은(65).”

“격렬하면서도 무엇하나 이루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다. 문학이란 늘 신랄한 아픔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시인을 만난 것은 지난 10일, 마침 이 나라 민주주의의 큰 획을 그었던 6월 민주항쟁 10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시인의 감회가 어찌 없으랴.

“그날 우리는 붉은 두 주먹 쥐고 모였다/탁하고 쳐/억하고 죽었다는 어이없는 죽음으로부터/...민주정취/독재타도/목터져라 외치고 외쳐야 했다/.../그날로부터 10년이 갔다/...결코 지난 일이 아니다/.../그 이름 국민운동으로/새로 펼쳐 일어나.”

그말다. 그의 삶은 시대의 산물이었다. 그 스스로도 그리하길 지정했고, 절창의 시를 남겼다.

“우리 모두 화살이 되어/온몸으로 가지/하공 뚫고/온몸으로 가지/가서는 돌아오지 말자/박해서/박힌 아픔과 함께 돌아오지 말자.” - ‘화살’에서
“그때는 꼭 그런 심정이었어.”

그것의 대가는 감옥이었다. 24시간 감시, 체포, 구금의 연속이었다. <고은시집> ‘악장연보’에서 ‘(80년) 5월 이후 국방부와 법무부에서 문이환 이문영... 등과 함께 근무. 죽음 직전의 극한 상황을 체험했다고 밝히고 있다.

《만인보》가 태어난 곳은 감옥이었다.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채운 곳, 남한산성 육군교도소 특별감방 제17방. 그가 들어오기 한달 전 강제규씨가 형장으로 떠날 때까지 있었던 방이었다. “창이 달려 있지 않아서 대낮에도 60층짜리 전기가 나가면 방구석의 소변통도 더듬어야 한다. 물론 방안의 공기도 바꿀 수 없었다.” “달살의 문이 열고 닫힐 때마다 드러나는 문지방이라는 것도 알았다. 나는 거기에 부딪쳐 내 흰 뇌수를 쏟으리라는 생각을 침착하게 진행시키면서 절호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공숙에 두 번이나 나타난 어머니를 대하고 자살을 단념했다. 그리고 《만인보》와 《백두산》을 구상했다.

“내가 이것을 구상할 때 그 당시의 캄캄한 정황의 세로로 보아 함께 겪어온 몇 사람은 시대의 인물이 되어 어쩌면 처형될지도 모르는 분위기였으므로 나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것에 대한 회고 없었단 말이 없다. 그런 회고와 문학의 공상으로 나아가게 되어 내가 태어난 이래의 모든 기지(氣志)의 사람과 미지의 사람 그리고 역사인물이나 역사에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 시로써 형상화하는 일을 결심했던 것이다.”

죽음의 상황이 빛과 역사와 사람으로 어우러질 줄이야. 만다라로 펼쳐질 줄이야.

《만인보》의 시작은 이렇다.

“너와 나 사이에 태어나는/순간이어 거기에 가장 먼 발이 든다/...//오 사람은 사람 속에서만 사람이 다 세게이다” - ‘서시’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승세계의 전개랄 수 있다. 《만인보》는 인간의 만다라라고 할 수 있다. 구역질 나는 시공장과 연꽃이 일치하는 불의 세계, 이것이 화엄 만다라의 본질이다. 이 본질을 통해 인간의 삶을 들여다 보았다. 또 하나는 인간만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시공간을 채우고 있는 생명, 무생명과 의 관계의 삶인 것이다.”

《만인보》에는 86년 첫 권이 나온 이래 15권까지에 2천여명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1~9권에서는 주로 들꽃이나 잠초처럼 강산에 번성하고 스러져간 고향과 고향 부근의 사람들을 그렸다. “70년대 사람들”로 불리는 10~15권은 시인이 70년대의 권력을 통해 만나고 스쳐간 사람들과 그 사람들과 관련된 사회적 명멸을 노래하고 있다. 70년대는 앞으로 3권의 분량이 더 쓰여진다. 이후 80년대와 90년대, 30권 4천여명에 관한 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30권 가지고도 못할 것 같아요. 죽지 않으면 더 쓰고...”

왜 《만인보》인가. 우선은 그 규모의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리 문학의 새 지평이다. 경이롭다. 그러나 무엇보다 공동체적인 삶의 정서를 다

양하게 복원해낸 서사성과 서정성의 탁월한 융합에 있다. 이와 관련해 문학평론가 박태경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이념은 제함에 서사적 틀을 부여하고 체험은 이념에 서정적 혼을 불어넣는다. 그럼으로써 이념은 그 추상적 정형으로부터 벗어나 보다 유연한 서정적 호흡을 부여받고, 체험은 사사로운 일회적 소멸로부터 견져올려져 역사적 지평 위에 그 항구적인 자리를 마련하게 되는 일련의 시적 성과가 《만인보》의 문학작 의의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시인이 그리는 삶은 무엇인가. 최근 시집 <어느 기념비>의 시편들이 말해주고 있다.

“눈보라 속/아내와 딸과 함께 아트막한 고개 넘어 가며/새해 첫날 이른 아침을 보내니/이제까지 너무 많이 가지려 하였구나/빈손이 이렇게 금방 날 듯이 새웃인 양 낯설고 좋을 줄이야 - ‘빈 손’

19일, 그이전 남다른 감회의 날이다. 70년대 같이 고생했던 분들이 뜻을 모아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잔치를 마련한다. 《만인보》 10~15권 ‘70년대 사람들’ 출판기념회. 강만길 리영희 신경림 한승헌...《만인보》의 한권씩을 차지하고 있는 이들이 초정인이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수미산, 수백천의 구도자들이 죽음으로써 거둬올라 마침내 불교의 우주관을 그려냈던 히말라야의 설산으로 떠난다.

오늘에 대해 한마디 없을 수 없다. “지금 우리는 정신을 뉘버렸다”고 말했다. 그리하여 슬픔도 없는 가난뱅이가 되었다고 일갈한다.

글=정성운 사진=고영매 기자

고은 시 감상

오복이 할머니

시름시름 누워 있다/가도 조금만 반하면 일어났다
이른 아침 이슬 차고
산 넘어 사래밭에 간다
누구 따라올까/바야 달아나듯이 간다
그 비알진 밭에 가
한 번 쭈욱 살펴보고
일면 자갈 주워내고
일면 풀 맨다
종일 사람 구경이라고는 씨도 없다
싸가지고 간
주먹덩어리 빵보리밥 삼키고
쉽 참도 없다
밥 먹고 바로 댕댕 풀 맨다
때어놓은 풀 밭씨 시들어
그 풀냄새가 동무이런가
그런 하루 딱 저물어서야
물 것 덤벼들고
잔술 밑 물병 보이지 않게 어두워서야
허리 쳐 일어났다
가져갈 것 없으니
모깃불 덮을 풀이라도 한 대발
혼자 산 넘어 돌아오는데
밤새 솟적다 밭씨 청송편다
돌아오는 마을이래야
어디 변변한 불빛 하나 있는가
그저 입에 넣을 것 넣고
어둠에는
고된 몸도 가려지매
바로 구들장 지는 마을이다
어머님 이제 오세유
하는 기어들어가는 며느리 말소리
귀하디귀한 손자놈이야
밭씨 자빠져 잔다
마당 구석 나팔꽃 오른 데로
반딧불 두어개 난다

‘만인보 9’ 중에서

만인보
高銀



리영희씨가 말하는 고은 “언제나 경이로운 시인”

... 집을 나설 때의 위기감도 가졌기에 비교적 가벼운 기분으로 안성 시골의 고은 부부를 찾아 들어갔다. 두 사람의 보금자리는, 내가 언젠가는 꼭 그렇게 가꾸고 차려서, 그 속에서 책임고 글쓰고 싶어하는 그런 환경이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권수의 땅에 조촐하게, 그러나 넉넉하게 지은 몇 개의 방과 마루는 나무에 둘러싸인 잔

다들을 향해 있었다. 오후의 햇빛이 따스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여기서 나는 고은의 부인, 제수님의 사람됨을 알았다. 고은의 온몸에서 시가 솟아져 나오는 이유를 알았다... “시가 막 쏟아져 나와요. 안 쓰고는 못 견디게 시상이 잇달아 떠올라요. 나는 이렇게 충족된 때가 없었어. 미칠 정도로 온몸에서 시가 튀어나와요.”

그가 얼마 전 나에게 그렇게 말했었다. 나는 그가 부처의 제자로서 대승으로 승화시키다 만 그의 전 존재를 시로써 이룩하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괴로웠던 한 시기(지금도 변함없지만), 어느 시인이 “세상 사람이 이렇게 괴로움을 담고 있을 때 나에게서 시가 쉽게 나온다

것은 배신이 아닐까?” 하고 말한 자백을 읽을 수가 없다. 고은의 “미치게서리 온몸에서 튀어나오는 시”가 그렇게 말한 시인의 시인적 고뇌를 초극한 위에서의 ‘시적 분출’이기를 빌며 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고은을 찾아서(버림목 펄럼)’에서